

哲學片感(八)

-哲學을 왜 非難하는가-

朴相鉉

悲觀을 버려야 한다. 世上은 苦海이니 人生은 虛無이니 하여 悲觀하는 사람들은 人類文化 線上의 退步者요, 墮落者인 것이다. 우리는 사라야 한다. 살되 價値있는 生活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當한 生的 慾望을 □有하고 있다. 이 慾望이야말로 所謂 先天的 賜物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相互協力하여 社會를 形成하고 文化向 上에 努力하는 것이다. 그런데 悲觀者나 厭世者는 自己의 가진 그 神聖한 先天的 賜物을 抹殺식힌 純全한 個人主義者들이다 人類文化가 어서케 되든 社會進展이야 어서케 되든 父母와 兄弟가 어서케 되든 自己에겐 苦惱과 悲哀가 있으니 自殺를 圖謀 할 수 있게 업다는 것이다. 이것이 人類의 反逆者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 生的 慾望은 다 어데나 □□하고 虛無한 死□의 世界를 憧憬하는가? 그런데 哲學이란 學問이 그런 厭世者의 對象되는 學問이란 말인가? 만일 그러다면 哲學은 厭世의 方途를 講하는 것이 될 것이겠다. 그러나 難者는 哲學을 根本的으로 誤解한 것이다. 압해서도 말했거니와 哲學은 決코 人類社會를 離脫하려고 하지 않는다. 도리혀 社會와 接近하려고 하며 社會에 堅固한 基礎를 세운 學問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哲學은 厭世者, 悲觀者의 學問이 아님이 的確히 證明되지 안았는가?

人生問題와 宇宙問題를 써나서는 元來 哲學의 成立이 不可能이다. 哲學은 언제나 高尚한 人生과 좀 더 進歩된 社會를 建設하는 그 根本的 根據와 原理를 論하는 것이다.

哲學을 工夫하는 者 決코 厭世의 氣分을 가지지 아니한다. 만일 哲學을 工夫한다는 사람으로서 悲觀을 한다면 哲學의 本質과 任務를 理解 못한 사람인 것이 確實하다. 數年 前에 日本에서 哲學을 工夫한다는 青年이 華□□에서 自殺을 하여 世人의 耳目에 一大 世세이슌을 이르킨 事實이 있다. 이 事實을 듣는 者는 哲學이 그 青年을 自殺까짓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事實을 哲學과 關聯시킬 必要가 업는 줄 안다. 哲學은 決코 自殺의 길을 가르치는 學問이 아닌 까닭이다. 만일 哲學者로서 世上을 悲觀했다면 그는 眞正의 哲學者라고 부를 수 업는 것이며 哲學을 誤解한 사람이다. 哲學은 決코 空想과 悲觀의 學問이 아니다. 어데까지든지 生者의 學問이다. 그리고 理論的으로만 哲學을 工夫하는 사람은 참으로 哲學을 工夫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업다. 卓上理論보다 哲學을 自己生活에 實際化하는데 所謂生活을 哲學化하는데서 哲學研究의 眞意義가 잇슴을 □□한다.

要컨된 哲學은 厭世者의 對象이 아니다.

哲學은 人類化의 價値를 探究하며 自己를 認識하는 一方法論일 것이다.
(끝)